

# 자가면역 질환부터 중추신경계까지... K바이오 中 진출 박차

中 고령화에 치료제 수요 증가  
강스템바이오텍, 中서 특허 취득  
대웅제약, 신약 등 중국 수출 본격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중국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강스템바이오텍, 대웅제약 등은 최근 중국에 협력업체를 확보하거나 판매망 구축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약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눈을 돌린 이유는 중국의 고령화로 치료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중국 제7차 전국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5%로 지난 2013년 9.7% 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더 빨리질 전망이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품질 좋은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제약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체 가운데 강스템바이오텍은 면역조절능 특화 세포치료제 개발기술의 중국 특허를 취득해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차별화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

해당 기술을 통해 NOD2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세포의 면역조절기능이 극대화된다. 나아가 세포로부터 면역조절인자 분비가 증가해 염증반응은 억제되는 것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성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동물 모델에서 줄기세포가 발현하는 NOD2 수용체를 활

성화했을 때 면역 및 염증 조절에 대한 치료 효능이 더욱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강스템바이오텍은 NOD2 수용체 변이가 자가면역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착안해 기술을 개발해 왔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중국에까지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중국 내 파트너사를 확보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중국의 의약품 수출입 전문기업 메헤코 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신약을 비롯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체 품목들에 대한 중국 수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 오는 2030년까지 신약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장벽

을 넘어 온 SK바이오팜도 중국 진출에 전념을 하고 있다. 최근 SK바이오팜은 중국 중추신경계 전문 제약사 이그니스 테라퓨틱스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상업화를 위한 임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SK바이오팜은 중국 진출을 위해 글로벌 투자사인 6 디멘션 캐피탈과 이그니스를 합작 설립했다.

아울러 SK바이오팜은 이그니스에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암페톨을 비롯해 카리스바메이트, SKL13865, SKL20540, SKL24741 등 신약 후보물질들을 기술수출했다. 이에 따라 이그니스는 향후 기술 도입한 다른 주요 치료제 임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SK바이오팜 측은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4년 단계별 기술료를 최대 100억원 가량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 “와인·푸드, 용품까지 한자리에 모았어요”

8번째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오픈  
맥주·사케 등 2400여종 제품 구비  
프리미엄 와인·위스키 등 선착순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나라셀라

와인 문화를 선도하는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도심 속 와인 아울렛 ‘와인픽스’의 8번째 매장으로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0)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와인픽스는 고객이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가성비, 테마, 음식, 교육, 배송 등을 고려해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1년 150여평 규모의 성수점을 첫 번째 매장으로 양평, 동탄, 부산, 여의도, 광주봉선점에 이어 올해 ‘와인 라이브러리’라는 콘셉트의 플래그십 스토어 청담점과 분당정자점을 오픈하는 등 지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분당정자점은 와인을

비롯해 위스키, 사케, 맥주 등 다양한 주류 제품에서부터 치즈, 글라스 등 푸드와 용품까지 약 2400여 종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나라셀라는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오픈을 기념해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샴프 오브리옹, 샴프 마고, 샴프 무퐁 로질드 등 보르도 그랑 크뤼 1등급부터, 부르고뉴, 이태리, 미국, 칠레 등 각국 프리미엄 와인과 발베니, 맥

켈란, 산토리 등 인기있는 위스키를 한정수량 선착순 판매한다.

또 오는 12월 2일까지(3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 산토리 가쿠빈, 발베니 12년 더블 우드, 지론 3종, 샴페인 사바르 4종, 돔 페리뇽 2013, 글렌알라키 21년 배치 4를 한정수량 판매하는 위클리 리미티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매 금액별 풍성한 사은품 증정 행사도 마련했다. ▲50만원 이상 구매 시 자페라노 보르도 글라스(2p, 선착순 30명)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슈피겔라우 피사 1L 디켄터(선착순 10명) ▲300만원 이상 구매 시 라귀올 와인 오픈너(선착순 5명)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이노베이티브 모던 레스토랑 KORII 2인 식사권(선착순 1명)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와인픽스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블랙페스타’ 기획전 선봬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종근당건강이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고객 감사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종근당건강은 자사몰 ‘종근당건강몰’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블랙페스타’ 기획전이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블랙페스타 기획전은 1년에 딱 한 번 열린다. 올해는 종근당건강 인기 제품을 3개 구매할 경우 1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메디씨에이, 제약-헬스케어 부문 대상 선정

제1회 디지털헬스케어 어워드

메디씨에이는 ‘제1회 디지털헬스케어 어워드’에서 제약·헬스케어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 어워드’는 대한디지털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대한디지털학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메디씨에이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메디씨에이는 척추 임플란트 부문 국내 1위 기업이다. 또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을 통한 신기술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미국, 칠



박제나 메디씨에이 이사(오른쪽)와 김현정 대한디지털학회 수석 부회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화약품.

레 등 해외법인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현지 주요 의사들과 ‘의학기술 자문단’을 결성해 의료기기 공동연구 및 투자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청하 기자

## 에이피알, ‘널디’ 뉴욕서 캡모자·비니 등 공개

롯데와 협업... 美 시장 진출 박차

글로벌 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널디’가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널디는 자사몰에서 주얼리 브랜드 옷 뉴욕(OHTNYC)과의 협업한 의류, 캡모자, 비니 모자 등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옷 뉴욕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다.

특히 ‘하드웨어 트랙 세트’는 널디의

2라인 트랙 슈트에 옷 뉴욕의 시그니처 피어싱을 더한 제품이다.

아울러 널디는 ‘컷아웃 하드웨어 세트’를 통해 많은 소비자 선택할 수 있는 입기 쉬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 캡, 비니 등 액세서리 류에도 옷 뉴욕의 피어싱을 적용했다.

이번 콜라보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 한정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널디는 제품의 색감이나 스타일링을 미국 소비자를 겨냥해 기획했다.

/이청하 기자

## 애경, AGE20'S 디오리진 에센스 팩트 선봬

선케어·톤 보정 등 3가지 기능 담아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선케어, 톤 보정, 베이스 메이크업 등 3가지 기능을 한 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을 마련했다.

에이지투웨니스는 ‘디오리진 에센스 팩트’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오리진 에센스 팩트’는 메이크업 기능과 기초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의 촉촉함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히알

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등으로 이뤄진 에센스를 72% 함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이지투웨니스는 고체 파운데이션 안에 수분 성분의 에센스를 담기 위해 에이지투웨니스의 독자 기술인 ‘에센스 포켓 기술’을 적용했다. 또 에이지투웨니스는 ‘피지 흡착·피지 관리 성분’을 첨가해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였다. 아울러 피부 톤과 상태에 따라 베이스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 지씨씨엘, 효율적 검체 분석관리 체계 수립

아·태 바이오분석기업 톱10 선정

지씨씨엘이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검체 분석 기술을 차별화하고 있다.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 지씨씨엘(GCCL)은 미국에서 ‘2023년 아시아-태평양 바이오분석 서비스 기업 톱10’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미국의 생명공학 전문지 ‘라이프 사이언스 리뷰’는 매년 구독자의 추천, 설문조사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지씨씨엘은 써모피셔의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검체 분석 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이청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